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

1)

차 옥 승**

1. 들어가는 말
2. 제주도의 여신들과 여성들의 신앙 공간
3. 제주도의 당신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
4. 제주여신들과 제주여성의 삶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제주도는 아직도 신화가 살아있는 곳이다. 현재 제주도 곳곳에 남아있는 당이 360여 개가 되고 서사무가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신화가 500여 편이 된다. 당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동제에는 여성이 주가 되고 제주도 당신의 남녀 비율에서 여성신의 비율이 배 이상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독특한 종교문화는 열악한 제주여성들의 삶의 정황에 기인한 것이다. 제주도라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지리적 제한, 척박한 자연환경과 어려운 역사적 정황¹⁾ 속에서 제주여성은 집안일, 밭일,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6-079-AS0070)

** 전 한일장신대 교수

1) 제주민들은 각종 부역과 관리들의 간악한 횡포, 왜구와 몽골의 무자비한 침탈, 오랜 세월을 걸친 과중한 진상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았다. 여자가 많은 이유도 남성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빈번한 해난 사고, 민란, 근세 이후 일본으로의 출가, 태평양 전쟁, 4·3사건, 6·25전쟁으로 인한 사망과 행방불명, 일자리를 찾기 위한 남성들의 육지로의 이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조선 인조 7년(1629)부터 고종 13년(1876)에 강화도조약이

바닷일에 더해 사회적 역할까지 감당해 내야 하는 고난의 쓰라린 삶을 살아내야 했다. 척박한 땅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농사와 잡수 활동을 도맡아 하며 생계유지를 담당해왔던 제주도의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철저한 독립심과 자립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초월적인 힘들을 신앙하게 된다. 어려운 삶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만큼 생명 보존과 풍요에 대한 강한 염원이 종교성으로 이어진다.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은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성격의 신앙공간과 신화들을 창출하였으며, 그 신앙공간의 주된 신앙행위자는 여성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신앙공간과 관련된 여신들을 분석하고, 종교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현재 살아있는 제주도 당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고, 여신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제주여성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삶의 모습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논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필자가 직접 제주여성들과 면접한 내용과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로 했다.

2. 제주도의 여신들과 여성들의 신앙 공간

제주도의 여신신화는 무(巫)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가 주를 이룬다. 구전되어 온 서사무가에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 심성이 잘 담겨있다. 더

체결되어 개항(開港)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250여 년 동안 제주여성은 출륙 금지를 당하여 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흉년과 과중한 진상, 부역으로 인하여 제주인들이 육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취해진 조치였다. 여인들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출륙 금지가 시행된 250여 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제주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여성은 오직 한 사람, 정조 18년(1794) 전 재산을 던져 제주백성을 구휼한 포상으로 그녀의 소원대로 '육지 구경'을 하였던 김만덕(金萬德) 뿐이었다. 조성윤·이상철·하순애 공저,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서울: 백산서당, 2003), p.33.

육이 구비신화는 일반 대중의 마음에 살아서 활동하는 신화이기도 하다. 구비신화를 통해 부단한 왜곡 속에서도 살아남아 긍정적 의미를 이어왔던 여성들의 염원과 모험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제주도라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지리적 제한, 척박한 풍토, 조악한 기후 등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원시종교인 巫는 제주인에게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또한 巫는 오랜 제주의 전통과 문화의 지면을 형성해 온 지배적 사상이다. 제주인들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에 대한 신앙을 생활화하였으며 그들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종교의례와 관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²⁾ 이러한 지속적인 신앙의 역사를 통해 제주여성은 무를 중심으로 한 전통신앙공간과 신앙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전통신앙공간에 내재된 의미가 생명의 지속과 생산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그 공간은 상징적으로 여성에 은유된다. 또한 그 공간의 주된 신앙 행위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전통신앙공간은 여성적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하순애는 여성적 공간의 또 다른 의미는 전통신앙공간의 경험을 통해 제주여성이 신앙의 상징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 내용에 대해 감성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전통신앙을 전승하는 한편, 개체로서의 한 여성이 제주여성이라는 정체성(혹은 기질적 특성)을 획득해왔다는 점에서 여성적 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앙공간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형식과 절차가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상징들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내면화된다. 각 여성은 신앙공간의 경험을 통해 개별자로부터 관계적 존재로, 나아가 제주의 공동체적 문화를 내면화한 여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전통신앙공간은 여성적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성이 그 곳을 이용하고 그 곳에서 의례를 주도한다는 현상적 차원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여성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관계성 속에서 해소할 수 있게 하고 광대한 생명세계에 겸허하게 참여하게 하는 실존방식을 지속시켜왔다는 심원한 의미로 읽혀야 한다고 본다.³⁾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 제주여성들의 전통신앙공간을 집

2) 鄭英喆, 『濟州道 傳統民家의 空間的 特徵 및 意味에 關한 研究—民間信仰을 中心으로』(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p.12-14.

3) 하순애, 「제주여성의 전통신앙공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

안과 밖을 나누어 여신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겠다.

2.1. 집안의 전통신앙공간과 여신들

집으로부터 마을로 이어지는 전통신앙공간은 삶의 터전이 온갖 초월적인 힘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이런 인식은 삶의 터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생명체 뿐 아니라 온갖 자연, 추상적인 세계까지 ‘영(靈)’의 세계로 느끼게 하여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온전하고 삶이 안녕하기 위해 그 터전을 관장하는 신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한다. 인간생명은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적인 생명감정에 기반한 것이 전통신앙이고,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러한 생명감정을 재생산해 온 곳이 전통신앙공간이다.⁴⁾ 따라서 전통주거공간은 기능적 요구에 의한 건축공간일 뿐 아니라, 神의 개념과 우주의 원리를 상징하며 질서와 의미가 내재되는 신성의 영역을 구축하여 신이나 초월적인 힘을 통해 재앙을 방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聖의 공간이다. 전통주거공간은 부정확한 외부와 정화된 내부가 대립되는 성과 속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⁵⁾

전통사회에서 집안의 구조는 일정 부분 성역할에 의해 구분되었고, 그에 따라 신의 성격도 남성 혹은 여성을 대변한다. 이는 물리적 경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정신적이고 관습적인 공간 구분이다.⁶⁾ 주로 집의 마루에 모셔지는 성주는 대주의 성격을 대변하고 안방에 모셔지는 삼신과 부엌의 조왕신은 여성의 생명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가신의 성격적 특성이 무엇이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巫的 신앙행위는 집안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집안의 주부가 진행해 왔다. 이런 점에서 집안에 신이 모셔진 자리는 곧 여성의 신앙공간이라 할 수 있다.⁷⁾ 또한 집안 곳곳은 신들과 신령스러운 힘들의

별위원회,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제주: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7), pp.255-313

4) 앞글, pp.312-313.

5) 鄭英喆, 『濟州道 傳統民家의 空間的 特徵 및 意味에 關한 研究—民間信仰을 中心으로』(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71.

6) 앞글, p.180.

불안처이다. 안방은 일상적인 삶의 중심으로서 남성의 공간이 되지만 아이들의 탄생을 주관하는 여신인 삼신할머니가 불안된다. 안방의 아랫목, 윗목이란 공간질서는 부뚜막=불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는 안방의 공간질서의 원점이 된다.⁸⁾

안방에 모셔지는 삼신할머니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성들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다.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성스러운 일을 담당하면서 위험한 경우를 감내해야만 했다. 출산의 과정은 항상 두렵고 위험했다. 따라서 여인들에게 출산의 과정을 주관하는 삼신할머니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이었다. 삼신할머니는 자손을 점지하고, 출산을 돕고, 아기의 성장을 돕는 여신이다. 때로는 삼신의 도움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도 한다. 삼신할머니는 여성들의 간절한 염원과 영적인 추구에 의해서 오늘날도 생생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 큰굿인 불도맞이 거리에서 삼승할망에 관한 본풀이를 한다. 불도맞이란 산신(産神)인 삼승할망에게 자식을 점지하여 주도록 비는 곳이다. 명진국 따남아기라는 삼승할망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니, 생불왕·생불할망·인간할망·이승할망·불도할망·불법할망 등 많다.

부엌은 불의 신인 조왕할머니가 모셔지기에 불경한 일이나 부정한 일을 금했다. 조왕할머니는 부정을 씻는 정화력이 있어 주거공간과 가족들을 정화하며 자손의 명과 복에 관련이 된다. 삼신할머니와 조왕할머니는 여성들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신들이며 특히 부녀자들은 조왕할머니에게 매일 평상시에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샘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가 올리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고하고 가내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한다. 특별히 정초에는 조왕신에게 일 년 동안 가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제의를 지낸다. 부엌 공간에 불이 지펴진다는 것은 가족의 생명이 온전히 유지되는 원초적 조건이다. 따라서 부엌에 좌정한 조왕신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인 셈이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부뚜막이 있어 부뚜막 뒤에(제주에서는 솔과 솔을 걸치는 솔밭침들인 솔덕 위에) 조왕신이 좌정해 있다고 생각하여 매일 아침 주부가 정화수 한 주발을 갈아 올리는 신앙의례를 하였다.⁹⁾

7) 하순애, p.288.

8) 鄭英喆, pp.64-67.

9) 하순애, pp.288-289.

조왕할머니 신화는 큰굿 때 집안의 모든 신들에게 축원하는 제차(祭次)에나, 신년가제(新年家祭)에 문신(門神)을 중심한 집안의 신들에게 축원할 때 노래한다. 첩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음을 당한 여산부인이 아들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 조왕신으로 좌정한다. 차가운 물속에서만 있었으니 얼마나 추웠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에 아들들은 어머니를 따뜻한 부뚜막에 좌정시킨다.¹⁰⁾

제주의 전통민가에는 안방에 집하여 고팡(광)이 배치되는데, 고팡은 주로 곡물, 두류, 유채 등을 저장하는 항아리를 넣어두는 곳이다. 고팡에는 집안의 제복을 불러일으켜 주는 칠성신이 모셔진다. 칠성신은 사신(蛇神)으로서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부신이며 곡신이다. 칠성신은 집 안에서 두 곳에 모셔지는데, 고팡을 거처로 삼는 신은 안칠성(안할망), 집 뒤꼍에 모시는 신을 밧칠성(밧할망)이라 한다. 안칠성은 집안이 고팡 한 구석에 모시는 女神으로 안할망이라고도 한다. 울타리 안의 외부공간으로서 대표적인 여성공간은 안뒤라 할 수 있다.¹¹⁾ 안뒤는 겨울철에는 세찬 바람을 막아 포근히 감싸주며 여름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공간이고 외부와의 시선이 차단되어 타인에 비공개되는 공간이다. 즉 주택의 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무적인 여성의 영역이다. 이곳에는 집안의 부를 이룩해 주고 곡물을 수호해 준다는 밧칠성이 모셔진다. 가내의 풍농과 고팡안의 곡류를 지켜주어 부를 이루게 해주는 여신인 칠성신의 내력은 「칠성본풀이」 신화가 설명해 준다.¹²⁾

이 신화는 큰굿 때나, 또는 칠성신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집안의 다른 곳 때 불러진다. 또 칠성을 부락의 당신(堂神)으로 모시고 있는 당에서 의례(儀禮)를 할 때도 불러진다.¹³⁾ 칠성신은 귀한 집 아기씨가 남자에게 희롱 당하고 임신을 하고 부모로부터 무쇠석갑에 가두어져 바다

10)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1996), p.p.182-199 참조, 차옥송, 『한국 여신신화와 여성정체성』(종교연구 제 45집, 2006년), pp.22-23

11) 양상호, 「제주전통주거에서의 여성 공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제주: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7), p.65.

12) 鄭英喆, pp.64-67.

13)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1996), pp.199-209.

에 버려진다. 버려진 아기씨는 그 속에서 아기를 낳아 아기들과 함께 뱀으로 변한다. 행운과 다산을 가져오는 뱀의 특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무수한 속신이 인도 등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 뱀은 여성의 불임을 방지하고 많은 자식을 가지도록 보증해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¹⁴⁾ 뱀의 다양한 상징에서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뱀의 달적인 성격 즉 풍요와 재생, 변형을 통한 불사의 힘이다.¹⁵⁾

이러한 풍요와 재생, 불사의 힘으로 숭앙 되는 뱀신에 대한 신화는 제주도에는 다양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부와 해녀들과 오고 가는 선박들을 보호 하는 세콧할망, 치병과 재물을 관장하는 토산 여드렛당신도 뱀신이다. 곰이 민족의 시조를 출산했고, 뱀이 인간을 부요하게 해주었다고 했기에 현상적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여성의 출산에 기원한 ‘생산성’이라는 공통된 속성이 깔려 있다고 본다. 무엇인가 ‘지극히 의미 있고, 인간의 삶에 소중한 것’을 생산해 낸다는 의미가 여성성과 직결되어 이해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변소와 돛통(뚝지막)을 통시라 부르는데, 정지와 반대쪽 또는 안거리 정지와 멀리 떨어진 밖거리 옆에 위치한다. 측간(변소)신은 「문전본풀이」에 따르면 조왕신을 죽인 첩으로 조왕신의 아들 칠형제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다가 탄로되어 변소에 도망가서 목매어 죽어 변소의 신이 되었다. 이 변소귀신인 측도부인은 조왕과 사이가 나쁘므로 제주도에서는 부엌과 통시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 하여 떨어져 배치된다. 또한 부엌의 것과 변소의 것은 부지깅이 하나 들멍이 하나라도 서로 왕래해서는 동티가 난다 하여 엄금한다.¹⁷⁾

이처럼 제주의 전통주거공간은 집안에 들어서는 문전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곳곳이 신들의 불안처이며, 모셔지는 신들의 내력을 담은 신화가 생생하게 살아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다.

14) M. 엘리야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2000), p.241.

15) 앞글, p.243.

16)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 여성신화』, (서울: 집문당, 2003), p.359.

17) 앞글, pp.64-67.

2.2. 집 밖 전통신앙공간

마을의 전통신앙공간으로 대표적인 것은 마을신을 모신 당이다. 당은 마을수호신을 모신 본향당, 육아와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똥당, 사신(蛇神)을 모시는 여드렛당, 해녀들이 다니는 해신당, 다른 마을로 시집 오면서 태생마을의 신당을 가지 가른 당들이 있다. 물론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당들이 모든 마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마을에 따라 신당의 수는 다르고, 또 신당의 형태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¹⁸⁾

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본향당(本鄕堂)이다. 마을마다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 있고 이 신을 모시는 신당은 본향당이다. 본향당에서는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마을 모든 주민의 참여로 제의가 드려진다. 마을 공동의 제장인 본향당에는 고정된 메인심방이 있다.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 이외에도 마을에는 기능을 달리하는 당신을 모신 당들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 본향당에서 마을의 수호신에게 행해지는 동제는 여성이 중심이고, 남성 중심의 동제로서 유교적인 포제(醮祭)가 따로 있다. 18세기 후반 유교문화가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 전에는 남녀가 함께 당굿에 참여했으나, 유교식 포제가 자리 잡은 이후 유교식 포제에 남성의 참여만 허용됨과 동시에 당제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의례로 구분돼 갔다.¹⁹⁾

당굿 대신 포제를 지내는 다수의 마을에서 신년 포제 때 포제 제관들이 본향당에서 제의를 행하기도 하고,²⁰⁾ 어느 곳에서는 포제를 지내기 전에 제관들이 본향당에 먼저 들러 본향당신을 위한 제의를 행하거나²¹⁾ 포제를 끝낸 후 포제 제관들이 다시 당으로 가 별도의 제의를 행하는 마을도 있다.²²⁾ 이처럼 한 마을에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은 마을의 정신적인 중심이 된다.

전통신앙공간으로 본향당 외에 개별적 비념을 하는 일뢰당이 있다. 일뢰당(七日堂)은 본향당 다음으로 수가 많은 것으로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일뢰당은 개별 기원의 당으로서, 이 당은 7일, 17일, 27일, 7자일에 참배한다고 해서 일뢰당이다. 주부들이 심방을 모시고

18) 하순애, pp.245-246.

19) 조성윤·이상철·하순애, p.244.

20) 앞글, p.186.

21) 앞글, p.186.

22) 앞글, p.186.

가서 기원을 하게 된다. 이 당은 유아를 위한 당이라는 뜻으로 「서당」이라고도 부르고,²³⁾ 여신인 일똥당신의 기능은 육아, 치병으로 주로 아이들의 복통, 피부병을 낫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²⁴⁾

사신(蛇神)을 당신으로 하는 여드레당신이 있다. 여드레당의 명칭은 제일(祭日)이 매 8일(8일, 18일, 28일)인 데서 유래하며, 이 당은 표선면 토산리의 여드레당이 기원이라고 하며, 이 당의 당신은 모계를 통해 계승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결혼에 의해 여드레당의 분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²⁵⁾ 여드레당을 다니는 신앙민들은 육아·치병을 비롯해 가정의 안녕까지 당신에게 기원한다.²⁶⁾

그 밖에 전통신앙공간으로 매 3일(3일, 13일, 23일)에 다니는, 물때에 맞춰 세물(조금 후 사흘 췌 되는 날)에 다니는 서물당,²⁷⁾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해신당이 있다. 해신당은 주로 ‘개당’, ‘돈짓당’, ‘남당’, ‘해신당’ 등으로 불린다.²⁸⁾ 장주근은 포구 전체의 수호신인 ‘개당(浦堂)’과 배를 매는 선창에 모시는 ‘돈지당’, 마을 전체의 당으로서 ‘해신당’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²⁹⁾ 그러나 같은 의미의 해신당은 포구에 있어서 ‘개당(浦堂)’이 되고, 배를 매는 선창을 ‘돈지’라 하니 당의 위치와 관련하여 ‘돈지당’으로 불리는 것 같다. 해신당의 당신은 마을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남당의 당신은 제주도를 만든 선문대 할망의 다른 이름인 세명주할망을 모신 곳도 있고, 또는 남당할망, 남당할아방으로 부부신을 모신 곳도 있다. 개당과 돈짓당은 주로 영감으로 불리는 도깨비신을 모신 곳이 많으나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다. 해신당 계열은 모두 해녀나 어부 등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당으로서, 당신들은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관장한다. 하순애는 제주도 전체를 보지 않고 학자들이 몇몇 곳을 방문하고 이것은 이렇다고 단언

23)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1), p.37.

24) 조성윤·이상철·하순애, p.135.

25) 앞글, p.135.

26) 앞글, p.136.

27) 앞글, p.154.

28) 앞글, p.136.

29) 장주근, pp.38-39.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하기가 제주도 신당에 좌정한 당신만 모두 264중³⁰⁾이 된다 하니 놀랍기만 하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제주도 당 신앙의 독특한 현상으로 ‘가짓당’이 있다. 가짓당은 ‘가지 가른 당’으로서 특정한 당을 나누어 다른 곳에 설립한 것을 뜻한다. 신앙민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무신과 자신들의 관계를 조상과 그 자손으로 설정하고, 마치 혈연을 끊을 수 없듯이 한번 당신과 맺어진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신앙민이 자신의 태생지를 떠나 살게 되었을 때도 당의 제일에는 자신의 고향마을 당을 찾아와 비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태생지의 堂神을 가지 갈라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별도의 신당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당가르기’라고 하고 그렇게 설립된 당을 가짓당이라고 한다.³¹⁾

또한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신앙하던 당신을 가지 갈라 가는데, 이것은 한 번 자신의 조상으로 모신 당신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지속시키는 신앙민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로 제주도의 다른 마을에서도 발견된다. 가짓당은 제주여성들이 태생마을 조상신에 대해 강한 귀속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³²⁾

한편 딸의 이름을 어릴 때부터 아예 당신에게 열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딸이 다른 마을로 혼인해 갈 경우에는 시택 쪽 당신에게도 정성을 들이고 또 친정 쪽 당신에게도 정성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당신을 조상신으로 여겨 한번 맺은 조상과 자손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³³⁾

필자가 송당에 들렀을 때 만난 잡화점을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에 다니는데 본인은 다니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른 곳에 살다 이사를 왔는데, 이곳 당에 다니게 되면 내가 못 다니게 될 때 며느리가 다녀야 되는데, 며느리가 육지에 살고 있으니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아예 나가지 않았어요. 나, 참 안 되

30) 조성윤·이상철·하순애, p.112.

31) 앞글, p.118.

32) 앞글, pp.274-275.

33) 조성윤·이상철·하순애, pp.118-119.

있지요?”라고 하였다. 시어머니가 다니던 당은 며느리가 이어서 다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시어머니가 다니다가 본인이 다녔고, 지금은 며느리가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한번 당신과 관계를 맺으면 끊을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 같다.

하순애의 조사(2000년)에 의하면 제주도내 마을에 현존하는 당은 346개나 된다.³⁴⁾ 거기에 당신에서 여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제주시 권역에서만 남신의 비율이 여신보다 높을 뿐, 전체적으로 여신이 남신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제주도내 여신 대 남신의 비율은 약 68% 대 32%가 된다.³⁵⁾

제주도에는 많은 신들의 근본, 내력,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의 본풀이가 곳곳에 심방들에 의해 구송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롭다. 본풀이는 무속의례의 한 구성요소이다. 이것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들이 그것이다.³⁶⁾ 제주도 전역에 현재 전승되고 있는 서사무가인 본풀이만 500여 편이 되고 각 마을의 당에 좌정한 신들의 형식이 갖춰진 당신본풀이는 제주도 전역에 70~80편정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³⁷⁾ 본풀이는 구전서사시이다. 종교의례에서 사제자에 의해서 가창되는 살아있는 신화로서 본풀이는 신화의 원모습을 아직도 잘 보존하고 있다.³⁸⁾

전통신앙공간인 당의 형태는 다양하다. 형태에 있어서는 커다란 신목을 좌정처로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며 가장 많다. 신목은 대개는 수령이 오래된 것, 가지가 많이 뻗어 넓은 공간을 가려 주는 것 등인데, 팽나무가 가장 많다.³⁹⁾ 굴형은 자연동굴을 신당으로 삼은 것으로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다. 굴은 바위굴 정도로 제주도 방언으로는 이런 형태의 굴을 '웨'라고 한다. 웨는 크기에 따라 수

34) 앞글, p.94.

35) 김태곤의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 전체의 무신의 성별에서 대개 남신이 지배적이고 무신 중 여신의 비중은 약 11%에 지나지 않는다. 앞글, p.114.

36)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1), p.44.

37) 앞글, p.44.

38) 앞글, p.54.

39) 조성윤 · 이상철 · 하순애, p.138.

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몸을 굽혀 겨우 제단을 차릴 정도의 것도 있다.⁴⁰⁾ 켈을 중심으로 한 당은 그리 혼한 것은 아닌데, 켈로 이루어진 당은 모두 신앙민들에게 '센 당'으로 여겨져 다른 마을의 신앙민들조차 큰당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바위형은 바위 자체를 당으로 삼거나 바위에 의지해 당을 이룬 경우, 혹은 바닷가 넓은 암반을, 바닷가에 돌출한 바위를 당으로 삼은 경우다.⁴¹⁾ 당집형은 당집을 지어 그곳을 당으로 여기는 경우다.⁴²⁾ 그밖에 주로 바닷가 언덕에 위치해 있는, 신성한 공간을 상징할 만한 신목, 신석, 당집 등이 전혀 없이 다만 둥글게 혹은 사각형의 돌담이 갖는 조형성 자체가 당으로 여겨지는 담형이 있고,⁴³⁾ 신목형의 당에 돌담이 쌓인 경우나 당집이 있는 경우인 복합형 등이 있다.⁴⁴⁾ 당에 좌정해 있는 당신의 수는 당에 따라 다르다. 하나, 둘 이상, 일곱 내지 여덟의 당신이 좌정한 경우도 있다.⁴⁵⁾

주변의 지면보다 낮은 분지형의 땅을 제주어로는 굴렁진 곳, 함진 곳(함몰된 곳)이라 한다.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함진 곳을 최적의 주거공간으로 꼽는다. 제주도의 전통신앙공간들이 위치한 장소는 대체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위치, 나지막한 분지형 공간이나 수림 속에 있다.⁴⁶⁾

일반적으로 당은 마을의 입구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나 필자가 방문한 당들은 일상의 삶터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여인들이 밭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바로 밭 옆에 있다든지, 목축업을 하는 마을에는 삶의 공간인 산 속에, 해녀들이 일하는 곳은 바다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당이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삶의 터전이 곧 신앙공간이 되고 있었다.

40) 앞글, p.139.

41) 앞글, p.140.

42) 앞글, p.141.

43) 앞글, pp.142-143.

44) 앞글, p.143.

45) 앞글, p.144.

46) 하순애, p.250.

3. 제주도의 당신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

제주도만큼 전통신앙공간의 생명력이 살아 있는 곳은 없다. 신앙민이 다니는 현존하는 당이 346곳이나 된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러한 현상은 척박한 환경과 아픈 역사 속에서 삶을 지탱해 온 제주여성들이 정신의 의지처로서 전통신앙공간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마을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정초에 당곳이 행해지면 마을주민뿐 아니라 마을을 떠나 타 지역이나 육지부나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당곳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제주도에서는 이처럼 전통신앙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필자는 1996년 4월에 마을주민 90%이상이 그 마을 당신을 믿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이 송당이다. 아침 일찍 찾아가 아무도 없는 마을에서 서성이다가 음료수를 사들과 노인정에 찾아가서 어른들을 만났다. 그곳에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서로 각방에 모여 계셨는데 외부에서 온 필자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니 옆방의 할아버지들이 모두 한 방에 모였다. 할머니들이 20여 명, 할아버지들도 10여 명이 되었다. 그곳에서 금백주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4·3 때나 6·25 때 송당에 큰 일이 없이 사람들이 다치기는 했어도 죽지 않은 것은 다 할머니가 보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2시간 남짓 그곳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련 없이 일어나 나오는 필자를 붙잡고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점심이라도 서둘러 지어 먹여 보낼 걸. 언제 또 보지...”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쉬워하시던 할머니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을 했었다. 짧은 만남을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그 분들과 필요한 정보 수집을 끝내고 아무런 미련이나 아쉬움 없이 갈 길을 서두르는 필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분들의 순수함이 상대적으로 때가 많이 묻은 필자를 발견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송당 하면 그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분들은 만 10년이 넘어 2007년 3월 26일에 다시 만나 볼 수 있었다. 그 사이 송당은 많이 변해 있었다. 이 당은 1986년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사회적 관심 속에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

도 다시 축성이 되어 있었다. 노인정도 2층에 위치해 있던 것과는 달리 아래층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노인정에 찾아갔을 때 할머니들이 작은 방에 13분, 할아버님들이 한쪽에 2분이 계셨다.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올리자 10년 전의 그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 동안 잦은 사람들의 방문 탓이었겠지만, ‘또 뭘 물어보려고?’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전 날 찾아 왔다가 모두 놀러 가서서 뵙지 못하고 갔는데 잘 다녀오셨느냐고 묻자 분위기가 조금 풀렸고, 10년 전 노인정이 2층에 있을 때 찾아 빈 적이 있노라고 말씀드리자 경계하는 듯한 표정들은 사라지고 반갑게 손을 잡아주셨다. 1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세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전 날 남겨 놓으신 떡을 찌서 내오시고 돼지고기 삶은 것을 권하셨다. 당신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제주지역의 당신 중에 제일 세고 원조라고 모두 말씀하셨다. 당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들도 자기 마을의 당신이 원조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당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당신안은 강한 마을인데 당신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마을도 있다. 대부분 그지 영험이 센 신이어서 열심히 당에 찾아다닌다고 말했다. 필자는 송당 외에 안덕면 대평리, 서귀포 서흥리, 성산읍 신천리, 서귀포시 동홍동의 주민들과 2007년 2월 20일에서 23일, 3월 23일에서 26일, 4월 2일에 면담을 했다. 면담 내용과 몇 가지 사례를 소개 하겠다.

사례1. 허울복(86세, 송당):

당에는 시부모님들이 다니셨다. 나는 아이들 낳고 보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을 편안할까 하고 부모님 이어서 다녔다. 이제는 며느리가 다니고 있다. 아이들 건강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정성으로 빈다. 제일에는 소, 돼지 먹지 않고 메와 과일을 가지고 간다. 정월 십사일에는 과세문안하고 심방이 와서 굿을 한다. 심방한테 제수 묻고 아이들 위해 돈 놓고 쌀 놓고 액막이 한다. 아이들 다 편안하게 해주시라고 다녔다. 4·3 때는 경찰주임 꿈에 새까만 폭도가 몰려오는데 백발노인이 몽둥이 들고 마을 입구에서 내 자손들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쫓아내는 것을 꾸었다고 한다.(이 이야기는 필자가 10년 전에 왔을 때도 마을 노인들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일제시대 때는 일체 당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베어버린 늪은 통나무를 당에서 모셔다 놓고 밤이 어둑어둑하면 찾아뵙고 새벽 네 시에

살짝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둑어둑 할 때 다섯 시쯤 새벽에 가서 빌었다.

사례2. 임정숙(81세, 안덕면 대평리 86-3번지):

어려서부터 나는 여기에 살았다. 부모님도 이곳 할망당에 열심히 다니셨다. 17세 때 이 동네에 시집을 와서 18세에 사공들과 대마도로 물질을 갔다. 물질을 하는데 그곳은 물이 깊고 넓어서 해녀들이 한 30여 명이 미역, 소라, 전복들을 아주 많이 잡았다. 그러다가 8월에 남편이 대마도에 와서 며칠 지내다가 일본 본토(시모노세키)로 함께 갔는데, 한 1년쯤 사나 전쟁이 나서 폭탄이 여지저지서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서 바다고 땅이고 시체로 넘쳐났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 많은 고생을 했다. 대마도에서 발동기 배로 제주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아들이 여섯 명이다. 남편은 그물질, 바다에 뱃일 하고 나는 농사일, 소먹이는 일 하며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를 시켰다. 아들들은 공부할 때 모슬포 고등학교까지 걸어 다녔다. 농사지은 거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고 나무도 해오고 하면서 살았다. 시내에 있던 자식들이 휴일이 되면 꼭 와서 집안일을 도왔다. 이제는 다 늙어 아들이랑 같이 산다. 나는 81세고 할아버지는 85세다. 먹는 것은 이제 먹을 만하고 자식들도 편안하다. 시집와서 일본에서 건너온 후에 25살부터 분향신을 모셨다. 할망신은 제일 센 최고의 신이다. 최고라고 생각한다. 보통신이 아니다. 이 신이 최고다. 거스를 수가 없다. 이 할망(여신)은 힘이 센 신이라서 다 들어 주고 보살펴 준다. 힘없는 인간 백성 잘 보살펴 달라고 빈다. 센 신이니까 그렇지, '여신이니까 더 좋다.' 그런 것은 잘 모른다. 옛날부터 모셔왔으니까 잘 모시는 거다. 다른 곳에 사는 아들들도 이곳 당에 정해진 날에 온다. 정월 17일, 6월 17일, 동짓달 17일(음력 기준)에, 자기 생기 맞는 날에 당에 간다. 그럼 아이들도 편안하고 자기 마음도 상쾌해진다. 절에도 다니는데 초파일, 칠석에도 가면서 아이들 위해 지금까지 살았다. 분향에 가서 "할마님, 우리 왔습니다. 모든 아이들 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하면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 여신? 그런 것은 잘 모른다. 그저 센 신이라서 좋은 신이라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그렇게 하니깐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다.

대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내력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여신이어서 좋다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이다. 그저 센 신이니까, 또는 마을의 당신이니까 믿는다고 했다. 여신

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서 보듯이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그런 것은 잘 모른다. 그저 마을에서 모시고, 시어머니가 모시던 분이래 다닌다.” “제주에는 원래 신이 대부분 여신이다. 그래서 자부심이라는 것은 없다. 원래 여신이 많으니까...”(서귀포 서흥리)

“여신이든 남신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니까 다니는 것이지, 신이 여신이든 남신이든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조상님이 우리 자손들 다 보살펴 주시는구나.”하는 마음이 든다. 웬지 여기(당)는 무섭지도 않고, 예전 폭동 때도(4·3때인 듯) 남자들이 다 잡아간다고 했을 때도 옛날 이장님이 이곳에서 잠을 잤었다. 신이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여신인지 남자인지보다 그냥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조상이라고 믿는다.”(성산읍 신전리)

이 글에 소개하지 못한 많은 응답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서귀포 서흥리에서 슈퍼를 하는 아주머니는 ‘아무래도 여신이니까 여자의 마음을 더 잘 알아 줄 것 같다.’는 반응이었고, 서흥리의 다른 분은 ‘시집 온 지 한 20년 됐는데, 그 때부터 다녔다. 제주에는 신이 계셔서 다녀야만 아이들한테나 집안애나 좋다고 해서 시집 와서부터 바로 다녔다. 당에 가면 가족들 편안하고 동네 편안하라고 빈다. 그렇게 빌면 맘도 편안하고 이루어지는 것 같다. 아무래도 여자 신들이 남자신 보다 세고, 마음에 와 닿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믿음도 더 가고 가깝게 느껴진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본향신이 남신이였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다녔겠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그럴 거다.’라는 반응이었다.

여신을 당신으로 모시고 있고 당신앙이 강하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해서인지 면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남신 여신에 관계없이 각 마을마다 당에 다니는 신앙민들, 심지어는 신앙심을 갖지 않은 마을주민들조차 자기 마을의 당이 ‘세다’는 표현을 했다. 대부분의 신앙민들은 당신의 위력과 영험함을 믿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을 떠난 경우에도 당신의 영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었다.

4. 제주여신들과 제주여성의 삶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대한 것과는 달리 면접조사를 한 결과 여신과 여성정체성의 관련성을 찾기가 힘이 들었다. 그러나 인식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지는 못했어도 신화에서 여신들이 보여주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강인한 성격들이 이미 제주 여인들의 심층에 녹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오랜 세월 제주 여인들이 희생적이지만 강인하고 책임감 있게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삶의 양태가 신화 속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주여성들의 삶의 양태와 여신들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제주여신들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제주여성들의 당당하고 강인한 삶의 모습은 제주도를 창조한 선문대할망, 농경신인 자청비, 앞서 소개한 송당의 분향당신인 천자또미누라고 불리는 금백주 할망신을 생각하게 한다.

먼저 제주도 전역을 만든 선문대할망을 보자.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濟州市)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고 하는 할머니. 빨래를 하려면 빨래를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에 놓아 발로 밟고 팔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빨래를 발로 문질러 빨았고,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小火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에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흘러서 된 것이며, 본래 성산리(城山里) 앞바다에 있는 소섬(牛島)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으나 옛날 선문대할망이 한 쪽 발은 선상면 오조리(五照里)의 식산봉(食山峯)에 디디고 한 쪽 발은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즘을 씻는데 그 오즘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던지 육지가 패어지며 오즘이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러 나갔고 육지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소섬이라는 것이다. 그 때 흘러 나간 오즘이 지금의 성산(城山)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즘 줄기의 힘이 하도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어서 지금 고래나 물개 따위가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 때 세차

게 오줌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서 여기에서 배가 깨지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 그 형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든 일들을 1인 3억 5억을 척척 해 내는,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당당하고 힘 있는 제주여성들의 능력이 투영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주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남자를 능가하는 힘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있다.

구좌면 세화리(細花里)의 문만호(文萬戶)의 며느리가 허벅(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을 지고 물을 길러 다녔다. 물을 길러 갈 때 네거리를 지나노라면 동네 청년들이 모여 서서 들음들을 드는 데에서 늘 마주치게 되었다.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청년들은 들지 못하여 바득바득하는 것이다. 문만호의 며느리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기에 저러는가,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아침 일찍 물을 길러 가게 되었다. 네거리엔 이른 아침이라 청년들이 하나도 없었다. 문만호의 며느리는 아무도 안 보는 때에 물 허벅을 진 채로 들음들을 번쩍 들어 보았다. 들음들이 가뿐하게 들렸다. 재미가 있어서 몇 발자국 걸어 보다가 뒷 발으로 휙 내던져 버렸다.⁴⁷⁾ 심돌 강씨할망 이야기도 같은 내용이다. 강씨할망의 시집 앞길에는 근리(近理)에서 제일 무거운 들음들이 놓여 있었다.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모여들어 들음들을 들어 보는데 들지 못하였다. 강씨할망은 시집 와서 얼마 안 되어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가다가 이 들음들에 발이 채여 귀찮아 물 허벅을 진 채 들음들을 번쩍 들어다 옆의 논밭에 던져 버렸다. 들음들은 흙 속에 움푹 패어져 들어갔다. 이튿날 청년들은 이 돌을 꺼내려고 논밭에 들어가 힘을 다 내어 봤으나 꺼낼 수가 없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강씨할망은 하도 우스워서 다리를 걷어 올리고 들어가 번쩍 들어 길거리로 내던져 주었다고 한다.⁴⁸⁾

이런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여신과 여인들이 암시하듯이, 제주도의 여자들은 강인하면서도 부지런하며 인내력이 강하다고 말한다. 오전에 집안일을 하다가 바다로 잠수일을 나가거나 밭으로 농사일을 하러 간다. 경우에 따라 농사일을 하다가 잠수일을 하고 잠수일을 한 후 집안일이

47) 玄容駿, 『濟州道傳說』(서울: 瑞文堂, 1977), pp.204-206.

48) 앞글, pp.206-207.

나 혹은 농사일을 하기도 한다. 해산 전까지 물질을 하다가 항구에서 길에서 해산을 하고, 해산 후에도 마음 놓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이 다시 물질을 하는 제주여성의 강인한 생활력과 근면성을 끈질 입에 올리곤 한다. 앞의 신화나 전설에서 보여주는 힘 있는 여신들의 모습은 은연중에 제주여성들로 하여금 강인하고 근면한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하고 또 살아낼 수 있다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농경신인 자청비 신화에서 보여주는 자청비는 자주적이고 의지력과 모험심이 강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생과 사를 변화시키는 등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농경신이 된 자청비는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짓눌려 사는 희생적인 여성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험과 승리의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마음에 드는 문도령과 결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든 고비를 이겨 나가는 모습,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야단치는 부모님에게 여자도 배워야 쓸모가 있다고 설득하는 모습, 선비들과 공부를 해서 장원을 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결혼에 성공하고, 죽은 남종과 남편을 살려 내고, 하늘나라의 변란을 평정하고 그 공으로 오곡 종자와 메밀씨를 얻어 지상에 내려오는 자주적이고 당당한 여신이다. 살해된 문도령을 살려내기 위해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에 들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서천꽃밭 꽃관장의 막내딸과 결혼하고, 그곳을 빠져나온 후에도 자기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막내딸을 생각하면서 문도령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얼마 동안은 그곳에서 막내딸과 생활하고 얼마 동안은 이곳에서 생활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여인의 아픔을 방지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나누어 갖는 모습에서는 처음 이 신화를 접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제주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하면서 그것은 또 다른 여성억압적 기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면 깨끗한 이부자리 잘 만들어서 두 사람이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와야 통 큰 여자로 여겨진다는 현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청비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처음 자청비를 대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다른 여인과 나누어 갖는 자청비의 넉넉한 마음에 경탄을 하면서 “역시 한국여신은 달라.”하고 생각도 했지만 그 이야기가 이른바 통 큰 여자를 양산하는

또 다른 억압적인 기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문도령을 살려 내고 변란을 평정하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내고 오곡의 씨앗을 가지고 지상에 농경신으로 내려온 자청비는 결국 농경신 중에 최상의 농경신으로 좌정하지는 못한다. 별로 한일도 없이 단지 자청비의 들봄과 사랑을 받은 것에 불과한 문도령이 상세경으로, 자청비가 중세경으로, 자청비의 하인이었던 정수남이 하세경으로 정좌한다. 이 모습은 제주에서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여성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모셔지는 정황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은 여성의 과중한 노동력의 결과가 가부장적인 사회의 지속을 강화시켜주는 또 다른 역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송당의 본향당신인 강남 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금백주 할머니는 열다섯 살이 되어 낭군감을 찾고자 가만히 천기(天機)를 짚어 보고 조선 남방국 제주 땅에 와서 제주섬에서 솟아난 소로소천국을 남편으로 맞는다.

어느 날 백주는 남편에게 농사짓기를 권유했다. 밭을 가는 남편을 위해 부인은 남편의 점심을 부지런히 차려다 주고 내려온다. 소천국은 지나가던 중에게 점심을 다 주고 밭을 갈던 자기 소를 잡아먹고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는다. 자기 집 소를 잡아먹은 것은 그럴 수 있으나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헤어진다. 그래서 할머니는 윗송당(구좌면의 上松堂神)의 당신(堂神)으로 좌정하고 할아버지는 아래송당(下松堂里)의 당신으로 좌정한다. 이 부부가 낳은 자손은 아들이 열여덟, 딸이 스물여덟이고 손자가 삼백열여덟이 되었다. 이 자손들이 퍼져 제주 각 마을의 당신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남자는 하늘로 여자는 땅으로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할머니는 하늘에서 태어나고 할아버지는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묘사 되고 있다. 천기를 짚어서 남편감을 스스로 찾아내어 당당하게 결혼하고 용납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자 이혼을 요구한다.

그 밖에 복신(福神)인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라는 당당한 주장 때문에 집을 쫓겨나야 했지만 끝내 그것을 입증한다. 가문장아기는 사람이 타고 난 운명을 관장하는 삼공신이지만, 신화에서 보여주

는 가문장아기의 모습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개척해 가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희생된 여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신화들이 있다. 제주도의 큰곳의 초공 본풀이(巫祖神의 내력을 노래한다.)에 나오는 노가단풍차지맹왕 아기씨가 겪는 이야기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외부와 단절이 되고, 그런 중에도 못 남성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불가항력적인 임신과 함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임신시킨 무책임한 남성의 외면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여성의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소개한 칠성신의 신화도 이와 같다.

해녀들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는 여신으로 해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해신이면서 바람의 신인 영등할머니는 육지에서는 농작물을 바다에서는 전복씨, 소라씨, 미역씨 등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주는 여신이다.

영등할미 신화의 내용을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은 멀리 일 떠나고 며느리와 딸을 데리고 살았다. 고을의 원님이 며느리와 딸의 미모에 반해서 강제로 끌고 가 겁탈을 하고 며느리와 딸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 또한 말도 못하고 기절하여 죽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이들의 원혼은 바람의 신이 되어 나타나 그들의 원한을 풀어낸다. 영등할미는 나타날 때 양쪽에 딸과 며느리를 데리고 나타난다고 한다.⁴⁹⁾

이처럼 여신들 중에는 가부장적인 지배질서의 희생된 여인들이 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무책임한 남성 또는 권력에 의해 성적인 수탈을 당해온 힘없는 여인들의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가부장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억압에 대한 사회고발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여신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원한을 풀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것을 승화시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끌고 나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신들이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은 시련 속에서 있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49) 차옥승, p.p.13-15

4.2. 제주여성의 삶

여신들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과 희생적이고 인내하는 모습들은 제주여성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필자가 직접 대담한 해녀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사례3. 오춘일(2007년 현재 48세):

나는 3남 2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가 한 분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 둘이 있다. 나는 내가 중학교 입학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수술을 많이 하셔서 일을 못 하시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동생들이 모두 남의 집 살이를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학업을 그만두었다. 열여섯 살부터 가장으로 잡수복을 사가지고 해녀를 시작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땅도 마련해 놓으셔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많이 힘이 들었다. 그 당시 막냇동생은 세 살이었다. 오빠는 혼자서 학업을 계속하다가 중단하다가 하면서 어렵게 전문대를 졸업했다. 아래동생들은 모두 내가 공부시켰다. 가장 힘이 들었을 때는 중학교에서 동생이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갔다. 동생은 공부를 아주 잘 했는데 시내 고등학교를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시내 고등학교를 보내겠다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동생의 담임선생님이 노력해 보자고 위로하면서 시내 고등학교 인문계 원서를 쓸 수 있었다. 안쓰러운 것은 일주일 생활비를 주면 하루 한 끼는 굶고, 참고서는 사서 보지도 못하고 부잣집 아이들 공부를 돌봐주면서 공부를 한 것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그 때는 동생들 생계가 문제가 될 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라면 하나 가지면 반쪽으로 끼니를 잇던 동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물질 열심히 하고 말일 하면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형편이 어려웠다. 막냇동생 공부시킬 때는 먹을 것도 덜 구애받고 형편이 나아졌다. 동생이 공무원에 취직을 하고 난 후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동생들을 다 대학을 졸업시켰다. 막냇동생도 제주도청에 근무하고 있다. 다들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결혼은 동생들 때문에 포기하고 살다가 스물아홉에 결혼을 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동창인 동네 사람과 결혼을 했다. 결혼 후에도 동생들을 돌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 후에도 알게 모르게 동생들을 돌보았다. 결혼하고 여동생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이 차츰차츰 나아지고 동생들도 열심히 살아주어서 형편이 나아졌다. 많은 고생을 함께 해서인지 우리 형제자매는 우애가 돈독하다. 동생들은 내가 희생해서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지금도 마음 아파한다.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의 대가만큼 얻어지면 편안한데 동생들 뒷바라지 못 할 때가 많이 힘이 들었다. 그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열심히 일했다. 눈이 하얗게 내릴 때도 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일러 물도 없을 때여서 눈을 치우고 비닐로 나무를 덮어 두었다가 불턱에 불을 피우기까지 물질을 하고 나와서 젖은 몸으로 버텨야 되었던 것이 힘이 들었다. 또 물질을 하고 나오다가 돌 위에 눈이 쌓여 보이지 않으면 발을 잘못 짚어 넘어지기도 많이 했다. 제주도는 바람도 심하게 불고 눈도 많이 오는 곳이다. 지금은 탈의장도 있고 온수도 항상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이 붙을 때까지 끙끙 일어있을 필요가 없다. 해녀들 보호 차원에서 정부 보조로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 있어 아주 좋아졌다. 바다는 항상 크고 작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양어장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황폐화되었지만 힘은 들어도 여생을 다 할 때 까지 나는 바다와 함께 살 것이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 농사일 하다 물질을 하지만 그래도 말일을 하다가 바다에 가는 사람은 말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한다. 몸이 피곤하면 얇은 테서 일하고 평상시에는 깊은 테서 일한다. 나는 상군이다. 벌이가 좋은 편이다. 육지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 곳 깊은 데서 오르락내리락 작업을 하면서 수평선 멀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해녀 일을 천하게 느끼지는 모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성산포 오펅리에는 조합원이 260에서 270명 정도 된다. 그 중에 고령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삼분의 일 정도다. 75~80세 되실 분들도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얇은 테서 물질을 하지만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활동할 때 까지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고령이 되신 분들은 추운 겨울 눈이 쌓일 때만 물질을 안 하시지 따뜻한 때는 쉬지 않고 다 물질을 하신다. 75~80세 된 분들은 다 일을 하고 계신다.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50~60세가 제일 많고 70~75세가 그 다음, 80세 이상이 그 다음, 40~50세가 10명 정도로 제일 적다. 그 밑으로는 없다. 그러나 성산포 수협권 내에 네 개 부락에 열 개 마을이 있는데, 30~40대가 30명 정도가 된다. 요즘 사람들은 해녀일이 너무 고생스럽고 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는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윗 사례에서 제주여성들의 힘든 환경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강인한

생활력과 가족을 위한 인내와 희생을 엿볼 수 있다. 때로 해녀들은 해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뱃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구에 내리자마자 아이를 분만하여 그 아이의 별명을 '축항둥이',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분만하여 아이의 별명을 '질둥이' 또는 이름을 길둥이(吉童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질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아간다. 산후 조리도 대체로 7일~15일 정도인데, 어떤 잠수는 3~4일 후 억척스럽게 물질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⁵⁰⁾

섬이라는 환경조건은 남성은 언제 바다에 나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이고, 남성들의 높은 사망률은 남편만을 믿고 의지할 수 없으므로 여성들에게도 강한 노동경제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생활을 책임질 딸은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강하게 키워야만 했을 것이다. 딸들은 시집가기 전에도 바쁜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은 물론이고 물질이나 고사리를 꺾어 돈도 벌어들이는 생산자의 위치에 있었다.⁵¹⁾

더구나 지형상 대규모의 집약농업 형태가 아니라 밭작물을 위주로 하는 자연적 조건에서는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이 뛰어난 노동경제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격적 특질 면에서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하여 그들 자신의 삶이나 가족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있어 서로의 결정권이 거의 대등하게 행사되고 있어 부부관계의 지면에 남녀평등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의 강한 자의식은 고령이며 1인 가족이 된 여성노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한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하게 한다. 제주여성들은 물질, 발일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고, 여성들의 강한 자의식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다.⁵²⁾ 이처럼 제주도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만의 독특한 종교문화를 형성해 왔다. 장남분가와 균분상속의 전통, 부계혈연집단의 결속 약화, 조상제상의 분할 등

50) 金恩希, 「濟州潛嫂의 生活史」(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69-70.

51) 박정희, 「제주도 여성 문화에 관한 고찰」(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27-28.

52) 앞글, pp.28-29.

은 육지의 전통적 가족과는 매우 상이한 것들이며,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의 사회적 접촉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이 약할 뿐 아니라 장례나 혼례에 출가한 딸이나 사돈댁 또는 외가친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비부계적 요소는 육지와는 다른 것이다.⁵³⁾ 또한 재혼한 새 남편이 아내가 데려온 자식에게 잘 해 준 다든가, 고부간의 갈등이 적은 것에서도 제주 가족관계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일상적 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공식적인 부계 혈통 중심의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이 남성 우월적 영역은 여성의 자주성에 의해 상당히 상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⁵⁴⁾

그러나 다른 한편 권귀숙은 제주해녀들의 생활상을 분석하고, 여성들의 근면성의 신화가 여러 글에서 수용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다.⁵⁵⁾ 이 근면성의 신화가 제주 해녀들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신화는 해녀들을 초과노동으로 내모는 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⁶⁾

이 신화는 해녀들의 자녀 세대 여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근면한 해녀인 어머니상을 여성들에게 강요할 수 있고, 여성들도 권리보다 의무가 더 강조되는 이 신화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구나 해녀의 신화가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때, 남성중심적인 성격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⁷⁾

5. 나가는 말

신화를 분석하면서, 필자는 한편으로는 여성신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 가부장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의식과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여성정체성이

53) 양상호, p.79.

54)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p.321.

55)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봄호, 1996), p.240.

56) 앞글, p.241.

57) 앞글, p.242.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 속의 여성인물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격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식과 여성정체성의 복합적 특성을 보려고 했다.

여성신화에는 세계창조와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창조의 여신, 농경신, 해신이 등장하고, 생명의 탄생과 죽음과 건강을 관장하고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의 공동체를 지켜주는 여신들이 등장한다. 필자는 이 여신들이 가부장문화가 만들어 놓은 여성이미지를 극복하고 이원론적 가치구조를 넘어서서 앞으로 구현해야 할 여성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자에게서 버림받고 폭행당하는 한 맺힌 억압상황 가운데에서도, 희생, 인내, 헌신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여성신의 이미지는 가부장적 문화구조 안에 처한 여성의 실재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렇게 여성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모두 여성 삶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다 원형적인 여성상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고 보았다.

특히 곳에 모여든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여신들의 원한은 그 곳에 모여든 여인들의, 아니 이 땅 모든 여인들의 아픔이요 한이었다는 점이다. 딸이어서 버림받고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어가고 남성들의 단순한 호기심에 희생되고 버림받은 힘없고 한 맺힌 여인들의 죽음은 여인들에 의해 새로운 여신으로 탄생되고 숭앙됨으로써, 어렵고 힘든 현실을 곳곳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여인들은 되풀이되는 제의 때의 신화 낭송을 통하여 그들의 아픔과 한을 잊지 않고 생생하게 전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신은 자신의 한을 풀어내고 또 다른 여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해방신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한국의 여신들은 그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상대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그 아픔을 승화시켜 그들과 똑같은 아픔을 당할지도 모르는 못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여신이 된다는 것에 주목한다.⁵⁸⁾

그러나 다른 한편 필자는 여성적 신성성이라는 개념들은 그 창조물을 여성에게 도로 덧씌우기 위해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여성들의 열악한

⁵⁸⁾ 차옥승, pp.20-22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들이 더 잘 참아내게 함으로써 그런 억압의 조건들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⁵⁹⁾ 마셜 휴이트의 지적을 상기한다.

현장을 오가면서 제주여성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많은 부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가 자칫 현실과 유리된 연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중요한 제주 여신신화와 여성정체성을 제주여성들의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다.

당신이 여신이고 신앙민이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대담을 했으나, 지역민들에게서 당신이 여신이라는 자부심이나 여신과 관련해서 자신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찾으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었음을 알았다. 그저 영험한 쉼 신이어서, 자손들을 잘 돌보아주는 조상이어서, 마을에서 대대로 할머니 어머니가 모시던 신이어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주여성의 삶과 여신신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그 속에서 여성성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가를 조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육지의 밭과 더불어 바다의 밭을 역척스럽게 일구어내며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모진 삶을 살아왔던 제주여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까지 긍정적으로만 보여졌던 신화의 내용들을 새롭게 읽을 수 있었다.

삶의 공간인 바다나 밭은 제주여성들에게는 노동공간인 일터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절박함과 모순된 삶의 고통들을 토로하고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신들이 거처하는 의지처인 신성공간이 되기도 한다.

필자가 찾아간 신성공간들은 화려하지도 그다지 인위적이지도 않은 자연공간들이었다. 텃밭 옆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팽나무가 가지를 늘어트리고 있어 이름 모를 새들이 울고 있는 고즈넉한 공간, 안내자가 없으면 찾기 힘든, 그런 곳에 위치해 있을 것 같지 않은

59) Marsha Aileen Hewit, "Do Women Really Need a "God/dess" to Save Them?: An Inquiry into Notions of Divine Feminine"(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Vol.10, No.2, 1998), pp.155-156.

텃밭 옆에, 자연 그대로 바위가 움푹 들어가 있어 일을 하다가 비가 쏟아지면 비를 피할 정도로 들어가 있는 깊이 얇은 바위굴들이 그런 곳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은 듯한 바위굴 앞에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러한 신성공간들은 아픈 삶을 살아간 여인들이 쉽게 찾아들 수 있는 자연공간이었다. 일터와 삶의 터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신성공간들!

신화에서 보여 지는, 그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강인하고 억척스러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 이면에 감추어진 아픔들이 얼마나 깊었겠는가? 살림살이는 또 얼마나 고달팠겠는가? 바로 이 신성공간에서 여인들은 신과 대면하면서 또는 홀로 조용히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과의 대면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삭이면서 살아갔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모든 것은 삶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살아야 하는 것, 살아내야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삶이 너무 고달파서 선문대할망, 금백조할망, 자청비 같은 창조적인 슈퍼우먼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내쳐진 힘없는 여인들, 왜구에게 손목 잡히고 도망가다 물에 빠져 죽은 여인, 외지에서 흘러들어와 외롭게 죽은 여인 등을 여신으로 좌정시키기도 하면서, 그 한 맺힌 아픔들을 보듬고 어루만지면서 삶을 살아갔으리라.

때로는 본향당신을 위한 마을곳에는 출가한 딸들까지 다 모이는 축제였을 것이다. 그 곳에서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마을여성 전체의 화합과 상생을 다지고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며 서로의 고통을 공유하며 그 고통을 풀어나갔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해석들이 식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한다.

주요어: 제주도 신화, 제주 여성의 정체성

<Abstract>

The Myths of Jeju Island and Jeju Women's Identity

Cha, Ok-Soong

Myths are still vividly existing in Jeju Island. Currently, we can find more or less 360 *Dangs*(shrines) all around Jeju and more than 500 myths have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shaman lyrics. It is remarkable that female deity is mainly worshipped in the village *Dongje*(shaman ceremonies) and the number of goddesses is more than twice of male deity.

These peculiar religious culture of Jeju comes from Jeju women's tough lives. Jeju women have had to support their family by farming and gathering seafood under Jeju's tough environment. As a result, they had to overcome countless hardship caused by threatening nature. The various hardships made them economically strong and independent, while they also forced them to have unyielding willpower to overcome tough reality and a variety of religious beliefs on the transcendent deities. Jeju women's tough lives have made themselves possess strong desire to survive and lead them to devote to religious beliefs. In other words, Jeju's poor environment created comparatively various goddess myths and their religious space, and women are its main worshippers.

This thesis analyzes Jeju's traditional female deities--goddesses-and reviews the *Dang* faith which now exists in Jeju with the religious cultural view. Based on the analyses and the interviews with Jeju women, it also focuses on Jeju women's identity.

While interviewing Jeju women, I found out that theoretical studies in a study could be discrepant and isolated from reality. In other words, I thought that just interviewing Jeju women could be enough to draw out their identity and Jeju's critical myths. But I could realize my

thought was totally wrong.

When I selected interviewees from the villages which have *Dang* faiths and worship goddesses, I expected them have a pride and positive views about their own goddesses. However, the result of those interviews was far from my expectation. Therefore, I changed the way of approach: I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Jeju women's lives and their goddess myths, and reviewed its feminine quality existing inside it.

In conclusion, when reviewing Jeju women's tough lives, I could find out the beautiful stories of the goddess myths of Jeju could play the role to conceal the cruel and poor lives of Jeju women, reinforce them to endure their tough realities they were facing and contribute to keep the oppressive social system for women

Key words: The Myths of Jeju Island, Jeju Women's Identity

K C I